

True Peace

天國 10年
天曆 06
2022년 양력 7월



발왕산 HJ 모나파크 천년주목숲길 봉헌식
천력 10년 5월 15일(2022.6.13)



하늘 섭리에 응답하는 신아프리카

케시 리그니 신아프리카 공동 천의원장



언제나 그렇듯, 저는 하늘부모님의 유일무이한 놀랍고도 승리하신 참어머님과 함께 하는 현재에 살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독생녀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늘부모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놀랍고도 깊은 심정과 사랑과 은혜의 하늘부모님의 독생녀!

전도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 1975년 아프리카에 도착 후, 많은 아프리카의 선남선녀, 소년소녀들이 통일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식구들이 항상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하늘부모님은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이 대륙이 매일 겪고 있는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늘부모님께 몇 개월을 기도한 후에 하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 벅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하늘부모님께서 적절한 순간에 아프리카의 중대한 사명을 위해 보호하시고, 구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식구들과 몇 년 동안 이 점에 대해 공유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프리카가 처음으로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이 소중한 대륙을 위해 늘 마음속에 간직해 오셨던 엄청난 사랑을 아프리카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때, 사랑하는 참어머님께서 아프리카로 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전에는 참아버님과 함께 오셨고 혼자서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참어머님께서 오셔서 통일운동을 인도하시고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하늘부모님 나라를 복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적 과오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아프리카로부터 승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해내신 놀라운 승리는 세네갈, 고레섬, 그리고 전 대륙의 해방을 위한 기도. 짐바브웨,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음베조, 넬슨 만델라의 출생지, 상투메프린시페, 니제르, 탄자니아,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하룻밤 사이에 아프리카가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아프리카는 응답했고 하늘부모님의 아름답고 사랑하는 승리하신 독생녀 참어머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식구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늘부모님의 존재는 하늘부모님의 소중한 딸을 통해 전 대륙에 전해졌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섭리 방향에 대한 윤 본부장님의 보고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프리카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참어머님께서 세상으로 가져오신 하늘 섭리의 정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늘부모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감동적이고 설렘도 있지만 참어머님께서 늘 하시던 것처럼 생사를 걸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깊고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실패하신다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대단한 것이며 아프리카는 이미 하늘부모님의 사랑하는 참어머님과 하나되기 위해 하늘부모님의 섭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의 참어머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고통 받는 세상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천운으로 사랑받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하게 된 축복을 받았기에 저는 엄청난 감사함을 느낍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하늘 섭리에 응답하는 신아프리카
케시 리그니 신아프리카 공동 천의원장

참부모님 동정

- 06 새롭게 또 60주년을
출발하는 날이 돼야
72가정 축복 60주년 회헌 기념식
- 08 천일국 시대의 중심인물로서
진실을 바로 교육해야
2022 YSP 미래세대공직자
1박 2일 워크숍
- 10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만찬

아프리카 순회 보고

- 20 실체화 모델 노정의 시작
2022 신아프리카 특별순회 보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 기념식

- 22 하늘부모님성회 제60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 기념식
- 2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 기념식
정년퇴임목회자 효정증거

참부모님 말씀

- 04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의
성취를 위한 섭리의 길 50년
평화경 제2편 9장
- 12 하늘에는 영광
인류에게는 축복,
천년 주목 길을 봉헌하나이다
발왕산 HJ모나파크 천년주목숲길
봉헌식 축도
- 16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적을 거두어 드리자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지도자 특별보고회
- 18 흑인들이 복 받을 때가 됐다
아침 훈독회 (말씀선집 386-071)
- 19 아프리카 대륙,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평화의 날
2019 아프리카대륙 서밋 및
효정가정축복축제 축도
- 40 천주평화사관생도,
어두운 세상에 빛 된 자가 되라
천주평화사관학교 제1기 입학식

- 26 효정가정상_축복가정 부문
- 28 효정가정상_목회자 부문

대륙활동보고

신아프리카

- 30 아프리카의 영성은 아직 살아있다
- 31 신아프리카를 향한
참어머님의 특별한 사랑

태국

- 33 태국 가족들이 알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프로젝트
태국 초종교 평화축복축제
- 34 타인을 위한 감사와 사랑의 문화 정착
태국 YSP 청소년 캠프

파라과이

- 35 파라과이 세계평화학술인연합 출범식

현장특집

- 38 발왕산 HJ모나파크
천년주목숲길 조성 경과보고

기관소개

- 41 미래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천주평화사관학교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의 성취를 위한 섭리의 길 50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
2004년 4월 30일 | 한국 서울 메리어트호텔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191개국 대표, 신사 숙녀 그리고 식구 여러분! 오늘은 본인이 천의를 받들어 나오는 길에서 50년 전, 즉 1954년 5월 1일 처음으로 통일운동을 위한 공식기구를 만들어 출발했던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개척해 온 이 길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 하나님만이 동기가 되신 외길이요,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핍박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본인이 창도한 이 통일운동은 하나님의 소원이 섭리사적인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본인은 지난 50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느 한순간도 시대적 사명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잊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주창해 온 통일은 단지 외적이요 형식적인 개념의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상인 근본적이요 완전한 조화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는 신령역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종교와 영계의 통일은 힘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과 영계가 지원하는 통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

다. 하나님을 중심한 신령역사에 의해서 심신통일, 인간과 인간의 통일, 영계와 육계의 통일,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본인은 완전히 투입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가정적으로 다 투입하고, 종족·민족적으로 다 투입하고, 통일교단을 다 투입하고, 지금도 세계와 전 인류를 위해 부단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참사랑으로 완전한 조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신인에 일체의 이상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인간이 갈망해 온 자유와 평화, 이상과 행복도 참사랑 안에서 조화 통일이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곧 참사랑 세계화운동인 것입니다.

교단 창설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초창기부터 열린 활동으로 초교파적·초종파적인 운동을 해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지칭해서 협회의 긴 이름 대신 통일교회라 불러 통칭 통일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본인은 통일교회 간판을 내릴 날을 고대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지상에 회복하고 재현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상 하시는 천국, 창조본연의 세계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류시조의 과오를 완전히 청산하고 초종교·초국가적인 해방권·석방권을 완성하고 본연의 사랑권, 사위기대의 이상을 결실해야 성취됩니다. 그것은 협회나 종단 자체 사명을 초월해 참사랑의 가정 이상을 완성해야 됩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축복을 받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할 축복결혼식이 절대적입니다.

본인은 순결교육과 참가정운동을 세계적으로 실천한 기반 위에 1996년 7월 3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많은 국가원수들과 세계 최고위 종교지도자를 포함한 4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해 공식적으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간판을 내렸습니다. 가정연합 창설을 통해 초종교적·초국가적·초인종적으로 가정 구원섭리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정 구원시대는 성약시대입니다.

천국은 참사랑의 본체이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자녀인 인간이 기쁨을 공유하면서 정으로 감응, 화답하는 참사랑의 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2004년 4월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가 열렸다. 행사의 마지막, 역만세를 하고 계신 참부모님.

평화통일가정연합이 참가정 축복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해 온 것은 이러한 초국가·초종교·초인종적 천국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혼자서는 그 이상을 이루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종족, 민족과 국가, 세계와 천주,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이상인 것입니다.

미래 세 시대의 세계는 인간을 중심한 주의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주의, 천부주의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참부모·참사랑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도래하는 세계질서의 핵심은 참사랑입니다. 즉 상대를 위하여 투입하는 것입니다. 미래세계는 무엇보다 종교가 먼저 간판을 내리고 참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생활을 정치권이나 세상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천부의 심정을 품

고 참사랑을 실천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세워 참가정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해 오는 한편,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인력을 아낌없이 투입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각계 지도자 여러분! 지금 때는 역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인류 본성이 소원해 왔던 이상세계, 즉 참사랑의 하나님을 절대가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조국 평화왕국을 창건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같이 엄청난 천운의 때를 맞았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천도에 따라 평화왕국을 창건해 가는 역군들이 되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말씀은 평화경 제2편 9장에서 발췌된 말씀입니다.

새롭게 또 60주년을 출발하는 날이 돼야

72가정 축복 60주년 회혼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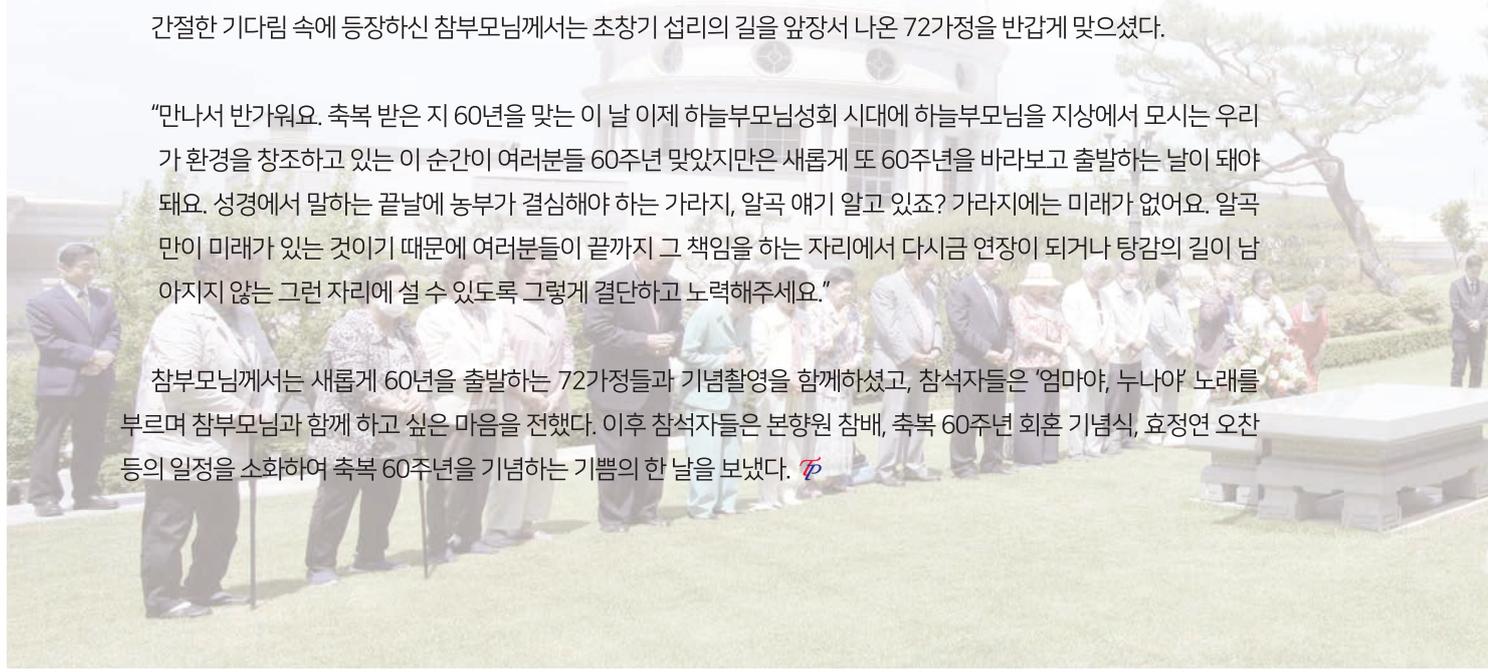


천일국 10년 천력 5월 2일(양 2022. 5. 31.) 아침 천정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발걸음. 1962년 양력 6월 4일 축복을 받아 60주년 회혼을 맞이한 72가정 원로선배들이 참부모님을 뵈기 위한 행렬을 옮기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일부는 서로에 기대어 한 걸음씩 옮기고, 때론 젊은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모인 사람들은 통일교회의 근간을 만들어낸 원로들이었다. 35가정, 48명의 참가자들은 60년 전 참부모님의 축도 아래 하늘의 참된 가정으로 출발할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참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감사해 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등장하신 참부모님께서서는 초창기 섭리의 길을 앞장서 나온 72가정을 반갑게 맞으셨다.

“만나서 반가워요. 축복 받은 지 60년을 맞는 이 날 이제 하늘부모님성회 시대에 하늘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시는 우리가 환경을 창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 60주년 맞았지만은 새롭게 또 60주년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날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에 농부가 결심해야 하는 가라지, 알곡 얘기 알고 있죠? 가라지에는 미래가 없어요. 알곡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책임을 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연장이 되거나 탕감의 길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주세요.”

참부모님께서서는 새롭게 60년을 출발하는 72가정들과 기념촬영을 함께하셨고, 참석자들은 ‘엄마야, 누나야 노래를 부르며 참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본향원 참배, 축복 60주년 회혼 기념식, 효정연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여 축복 60주년을 기념하는 기쁨의 한 날을 보냈다. 



- 1 72가정회 대표자가 참부모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다.
- 2 참여머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72가정 회원들.
- 3 천정궁에서 참여머님을 모시고 72가정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4 효정연에서 열린 72가정 축복 제60주년 기념식 단체사진.



천일국 시대의 중심인물로서 진실을 바로 교육해야

2022 YSP 미래세대공직자 1박 2일 워크숍

천일국 10년 천력 5월 1일~2일(양 2022. 5. 30.~31.), 2022 YSP 미래세대공직자 1박 2일 워크숍이 미래세대 지도자 총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27 승리를 위한 비전 사명 공유 및 미래세대 지도자 상호 간의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천원단지 일원에서 진행됐다.

천력 5월 2일, 그 일정의 마지막 시간, 참부모님께서서는 청년지도자들에게 천일국을 살아가는 중심인물로서 성장하는 청년의 삶을 전하는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다.

“너희들이야말로 천일국 시대의 중심인물입니다. 알겠나? (예) 중심인물. 너희들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는 곳은 작은 교회와 마을일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중심인물로서의 섭리사의 진실을 바로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하늘부님의 꿈, 참부모의 소원, 인류의 소원인 지상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종교인들은 종착점에 왔으니 내려라 했어요. 기독교뿐만 아닌 불교, 유교, 타종교들도 다 종착점에 왔으니까 내려야 돼요. 내려서는 하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독생녀 실체성신 평화의 어머니를 만나는 길만이 미래가 있는 길입니다.

너희들은 이 천일국 시대에 평화의 어머니 참부모 시대에 알곡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끝난 후 YSP 청년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해주시며, 현장에 복귀하는 청년지도자들을 격려해주셨다. 청년지도자들은 성화 용사의 노래를 답가로 불러드리며, 참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맘껏 표현했고 결의의 찬 마음을 품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 1 미래세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참여머님.
- 2 참여머님을 모시고 YSP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3 성화용사의 노래를 제창하고 있는 YSP 지도자들.
- 4 YSP 전국 지도자 워크숍에서 강의와 체육대회의 한 장면.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만찬

천일국 10년 천력 5월 10일(양 2022. 7. 8.),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만찬이 매그놀리아멋집 2층, 매그놀리아 레스토랑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80여 명의 천일국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거행됐다.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캄보디아 훈 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승리하고 돌아온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전체를 대표해 꽃바구니와 훈 센 수상이 보낸 캄보디아 최고의 화가가 그린 유화 그림 "평화의 여왕"을 예물로 봉정했다.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말씀을 전해주셨다.

"이제 모든 기관과 본부가 하나 돼서 2027, 60개월을 지금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지상에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와 함께 섭리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 해주기를 바라서 내가 오늘은 특별히 60개월을 승리할 수 있는 건강 메뉴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맛있게들 먹어요."

임종혁 목회처장은 60개월을 새 출발하는 이 때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전진하자는 마음을 모아 보고기도를 올렸고, 이기성 천심원장의 승리제의가 있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참어머님의 성수무강과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 승리! 승리! 승리!"

만찬이 진행된 후,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특별보고가 이어졌다. 참어머님을 대신해 방문한 이번 일정에 캄보디아에서 UPF가 국가 기준의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참부모님의 위대함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6월 5일 캄보디아 기초의회 지방선거에 70개 단체와 국가의 일원으로 감찰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캄보디아 방문은 대륙단위의 섭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대륙 단위로 이제 출발해야 돼요. 환경 창조입니다. 환경 창조는 대륙 단위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특히 아프리카 대륙 이 두 축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대륙단위로 해야 60개월 동안 대륙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조국이며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셨잖아요. 그 아버님의 유언이 환태평양이, 그 비전이 우린 그저 선포로 기도로 받아들였지만 어머님께 의해서, 평화의 어머니에 의해서,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영적 계시 중에 하나가 '끝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진뿐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

YSP 학생들이 효정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효정특별공연과 천일국 지도자들의 효정노래자랑이 이어지고, 참어머님과 다같이 '엄마야 누나야'를 불렀다. 주진태 신한국 공동회장의 선창으로 역만세를 부르며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만찬'을 성료했다. 



- 1 캄보디아 순회의 특별보고를 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 2 보고를 경청하고 계신 참어머님.
- 3 특별보고를 듣고 있는 천일국 지도자들.
- 4 특별공연을 펼치고 있는 YSP 회원들.
- 5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계신 참어머님.
- 6 특별만찬의 마지막, 다 같이 억만세를 외치고 있다.



하늘에는 영광 인류에게는 축복, 천년 주목 길을 봉헌하나이다

발왕산 HJ모나파크 천년주목숲길 봉헌식 축도
천일국 10년 천력 5월 15일(양 2022.6.13) | 용평 리조트





존귀하옵신 하늘부모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오시는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오늘 발왕산에서 이날을 맞으면서 당신께서 수없이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신 그 뜻을 깊이 헤아려 발왕산 모나파크를 중심으로 이곳에 아들과 자녀들이 그동안 하늘이 이 한날을 위해서 준비해 나오신 실질적인 기록의 역사를 오늘 찾아 하늘 앞에 봉헌하고 이 기쁘고 감사한 이날이 있기까지 당신의 창조이상 실현을 위한 그 원대한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얼마나 고생해 나오셨습니까.

2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까지 4천년이라는 탕감복귀의 쓰라린 세월을 거치어 당신이 다시 한번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아들을 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오늘 저희는 아웁니다.

하늘부모님, '다시 오마'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그들이 하늘의 뜻을 받든다 하였으나 하늘의 깊은 심정과 사연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창조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열매를 맺어 당신께서 그리시던 지상천국의 생활을 자녀들과 함께하려 하셨던 그 꿈이 있었기에 2천년 만에 이 땅에 독생녀를 보내주시어 참부모로서 섭리를 펼칠 수 있는 과정에서

하늘은 얼마나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려 나오셨습니까.

드디어 새로운 섭리 역사를 출발하여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고 천일국 안착을 대륙 차원에서 이루어 이제 이 민족이 하늘 앞에 충과 효를 다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있어서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늘이 그동안 얼마나 얼마나 그리워하며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수고해 나오셨는가를 보여주셨사옵니다. 이 모나파크의 자연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죄악에 찌들었던 모든 아픈 사연들을 이곳에 와 하늘이 기다려 온 이 시점에서 보여주신 이 자연의 경이로움 가운데 하늘을 모시고 하늘섭리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자연이 말해주듯 참부모를 통한 참가정, 천보의 이 천일국의 백성들이,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백성들이 하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하늘을 모시는 나와 가정과 나라가 될 때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불어닥치더라도 반드시 하늘이 함께하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의 자연을 통해서, 특히 천년 주목 길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천년 주목의 이 자리가 얼마나 얼마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음을 하늘 앞에 감사히 봉헌 선포하나이다. 아주! ㄸ



- 1 어머니왕주목가든에서 참여머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신달순 용평리조트 사장.
- 2 천년주목숲길 입구, 발왕산 HJ모나파크 천년주목숲길 봉헌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3 천년주목숲길 이정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계신 참여머님.
- 4 어머니왕주목을 새긴 도예작품과 신경원국 국화 도예작품을 예물로 봉정한 후 기념촬영.
- 5 어머니왕주목 가든을 성별하고 계신 참여머님.
- 6 신한국 5명의 공동회장의 역만세 선창에 이어 다함께 역만세를 하고 있다.
- 7 발왕수 가든 앞에서 효정수를 받아든 참여머님.
- 8 천년주목숲길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신 참여머님.
- 9 어머니왕주목 앞에서 참가한 천일국 지도자 단체사진.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적을 거두어 드리자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지도자 특별보고회
천일국 10년 천력 4월 26일(양 2022.5.26) | 천정궁

오늘은 하늘부모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늘의 슬픈 복귀섭리 노정 가운데서 참부모를 세우시어 60년간 섭리해 나온 터 위에 독생녀 참어머님으로 말미암아 기원절이 선포되었고, 새 시대 천일국이 열렸습니다. 그 천일국이 어떤 모양인가를 참부모는 보여주어야 해요. 창조주의 꿈은 타락한 인류를 참부모를 통해서 다 구원하여 품고 싶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딸, 자녀로 품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아프리카

구원섭리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늘이 많은 수고를 하시어 섭리의 발전은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상에서 하늘부모님 꿈의 실현은 참부모가 지상에 있을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섭리를 놓고 볼 때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대륙, 아시아대륙이나 기독교문화권이 발달되어 나온 곳은 세계적으로

넓혀져 있으나 정말로 하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하고 싶고 품고 싶었던 대륙은 보잘것없고 힘든 삶을 살아온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섭리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대륙은 많이 약해요.

나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세계 앞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세네갈에 가서 정상회의를 한다고 할 때 모든 간부들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반이 너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심정을 안고 이 아프리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이 이 불쌍한 대륙을 통



①



②



③

해서 길러 나온 의인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행을 한 결과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니제르에서는 대륙 차원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나라들이 다 기독교권이 아니라 무슬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회개를 통해서 하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지요.

그래서 무슬림권 종교지도자와 기독교권 종교지도자 세 의인을 형제로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본부의 지시를 따라 자기 교단에 천보가정의 책임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으면 돌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하늘이 사랑할 수 있는 알곡으로 천보의 승리한 아들딸, 천일국 백성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단과 나라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다녀온 길은 그걸 재확인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천일국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중요한 책무를 다하고 왔어요. 이제 내년이면 천원궁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하게 돼요. 하늘부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환경권을 더 넓혀야 되잖아요. 그 환경권을 더 넓히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말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거두어 드려야

여러분이 이제 이 민족과 이 나라, 세계 앞에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하늘 앞에 거두어 드려야만 해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에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와 이 민족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늘을 공

- 1 (좌로부터) 캄보디아 순회 소감을 발표한 방승만 선교처장, 참석 소감을 발표한 이현영 UPF 한국 회장, 사회를 맡은 조성태 총무처장, 참석 소감을 발표한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참석 소감을 발표한 박영배 신한국 공동대륙회장, 특별보고를 한 윤영호 세계본부장.
- 2 천정궁 연회실에서 펼쳐진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지도자 특별보고회 전경.
- 3 전체를 대표해 참부모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경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민족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이 아프리카 대륙을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섭리를 일으켜 주셨듯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이제는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답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보여줘야 돼요.

흑인들이 복 받을 때가 됐다

아침 혼독회 (말씀선집 386-071)
양력 2002. 7. 15 | 이스트가든

흑인들, 불쌍한 사람들! 내가 패러컨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백만 패밀리 마치(백만가정대행진) 하게 될 때 내가 협조 안 했으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천신만고 별의별 수욕을 당하는데, 누가 통일교회 사람도 그거 지원하는 걸 바란 사람이 있어요? 다들 원치 않았지요.

그들이 이제 복을 받아요. 그럴 징조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예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흑인들이 그때가 왔어요. 힘의 세계에 있어서 못 당하고, 운동세계에서 못 당해요. 그리고 예술적이예요. 베짖이와 개미의 우화가 있지요? 끝날에는 노래를 잘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걱정 없고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노래하고 붙들고 춤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술분야에서 흑인을 못 당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또 운동세계에서 흑인을 못 당해요. 펠레 같은 사람을 보라구요. 펠레는 흑인의 한 사람인데, 백인이 됐으면 축구 왕이 됐을 것 아니예요? 그래, 복싱 같은 것도 누구?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구요? 무하마드 뭐라구?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알리! 그것 다 하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거라구요.

또 지금 미국 교회에 있어서 그래도 불길이 남아진 곳은 백인 교회가 아니예요. 백인 교회는 냉랭해요. 흑인 교회는 미쳐 가지고 노래를 잘 한대구요. 악을 쓰면서 말이에요. 동네가 춤을 안 추게 되면 악을 써 가지고라도 춤추는 모양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흑인 교회예요.

그럴 때가 됐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들을 흑인과 결혼해 주고, 밀링고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똑똑한 한국 여자하고 해줬어요. 또 일본 여자, 스틸링스 대상 이름이 뭐라구? 「사요미입니다。」 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세계의 남자나 여자나 사랑을 중심삼고 그리워하는데 있어서 표제가 되어야 할 것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을 오색인종과 결혼을 많이 해줬어요.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결혼 많이 시켰다구요. 했나, 안 했나? 일본 여자들이 원한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원하니 자기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가서 맨 처음에 1대 2대 3대 전에 뜻의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을 것을 선생님은 알고 그렇게 믿고 해준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평화의 날

2019 아프리카대륙 서밋 및 효정가정축복축제 축도
천일국 7년 천력 11월 11일(양력 2019.12.7) | 요하네스버그 FNB 스타디움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오늘 이 날이 있기 까지 당신은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아 6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린 바 슬픔과 고통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창조이상은 책임한 인간을 중심하고 출발하려 하셨기에 타락한 인류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 구원섭리 역사를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내서 교육해 나왔지만은 2천년전 당신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메시아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무지한 인간이 하늘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다시 오마 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을 창조이상을 승리한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참부모가 나와야만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당신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되기까지 이 타락한 인류는 전쟁과 갈등 억압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한낱 하늘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향해서 정성들여 나왔습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 대륙은 대서양 문명권을 통하여 나중 된 자였지만 너무도 억압과 인권유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하늘이 보시기에 너무도 불쌍한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섭리의 완성을 보기 위해 1960년에 참부모를 탄생시키시어 타락한 인류를 하늘부모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길러 나왔습니다.

특히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수많은 선지자와 많은 나라들의 왕들과 족장들의 염원이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평화의 그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아

프리카 대륙의 54개국에서 당신의 자녀로 입적하기 위하여 모인 축복가정이 탄생되는 이 자리입니다.

하늘부모님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날이었습니까? 당신의 숙원 이제 오늘부터 이 축복가정들을 통하여 이들이 축복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종족메시아의 책임을 하게 될 때 이 아프리카 대륙이 더 이상의 비참한 대륙이 아닌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대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오늘 축복의 이날은 함께하시는 하늘부모님! 당신의 한 많은 눈물의 역사가 이 오늘의 날씨를 표현하듯이 이제 당신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녀들이 오늘 탄생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늘을 외롭게 하지 않는 효자 효녀의 축복가정이 될 것을 맹세하는 이 자리가 되겠사오니 하늘부모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원 선포하나이다. 아주. 



실체화 모델 노정의 시작

2022 신아프리카 특별순회 보고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지도자 특별보고회가 천 일국 10년 천력 4월 26일(양 2022. 5. 26.) 참부모님을 모시고 88명의 천일국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모두가 예를 올린 이후, 아프리카 특별순회를 다녀온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전체를 대표해 꽃바구니를 봉정했다. 이후 케이크 커팅을 하며 승리 귀국을 함께 축하했다.

참부모님께서 신아프리카를 통해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위해 돌봐야 함을 말씀하셨다.

1975년 일본과 미국, 독일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적인 섭리가 출발한 아프리카는 2018년 최초로 대통령 주관의 월드 서밋이 성사되어 아프리카 54개국 대표 및 중진들이 한데모이고, 종단 최고 지도자 기반 위에 참부모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종단복귀와 국가복귀 섭리가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어온 아프리카를 해원 축복하신 참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지상과 영계의 판도를 바꾸는 울림이 되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다.

희망전진 대장정이 숨 가쁘게 이어진 2019년에는, 남아공에서 거행된 10만 축복식,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 주관의 서밋과 축복식, 니제르 아프리카 서밋 등을 승리로 이끌며, 하늘부모님이 함께하시는 신아프리카로 거듭났다.

이 기반 위에 이번 아프리카 특별순회는 정상 회담, 종단장 회담, 아프리카 지도자 특별 총회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빛나는 신아프리카를 통해 하늘부모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섭리의 실체화 노정이었다.

참부모님께서 출발 직전에 윤 본부장에게 녹색 목걸이를 전해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가서 잘 사랑을 주고 좋은 실적을 가지고 와라.” 말씀해주셨다. 참부모님께서 신아프리카 순회 내내

이렇게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 주셨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결의만이 아니라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고를 이어갔다.

“이번에 아프리카로 간 것은 아프리카의 미션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엔이 지금 할 수 없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통일세계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부모님, 참어머님이 계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야죠. 쿼텀 점프(quantum jump)를 해야죠. 국가 단위가 아니라 대륙 단위로 가야 되는 거죠.”

또한 신아프리카 특별순회를 4가지 목적으로 정리했다. 첫째, 신통일세계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한 60개월 노정의 출발이다. 둘째, 신통일세계에는 실체적 대륙 복귀 3분의 1을 복귀하고자 하는 신통일세계 안착 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 셋째, 아프리카를 모델로 만드시





려고 한다. 이것을 '신통일세계 아프리카 운전자론'이라고 부르겠다. 넷째, 하늘부모님성회에 예배 플랫폼과 어머니님 만드신 유엔 플랫폼을 아프리카 유니언에 세팅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특별순회 기간 동안 2020년 제4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이 아프리카 유니언 의장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세네갈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고,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신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니제르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브리기 라피니 전 니제르 수상이자 사헬사하라 27개국의 수장인 국가연맹 사무총장의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하데베 선지자, 은단가 대주교,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 의장 등 세 명의 종단장을 만나 회담을 했다.

또한 신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모여 특별 총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게 단절되어 있는 아프리카 땅에 찾아온 세계본부의 임직원들을 반기며 신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참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지한 전략 회의를 통해 희망을 찾아 나갔다.

윤 본부장은 특별보고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결의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60개월의 사생결단 전력투구의 노정을 걸어갑니다. 아까 어머니님 주신 말씀대로 말뿐이 아니라 선포 선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고, 행동을 넘어서 결실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님께서 지난 9년 동안 닦아 놓으신 그 기반, 그 기반 그 씨앗이 이제 결실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께 60개월 이제는 우리가 자녀 책임 분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해서 올리겠다라는 결의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책임분담섭리시대”, “자녀 책임분담시대” 섭리적 황금기에 사생결단, 전력투구하여 선의 실적을 올려드리는 천일국 지도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지도자 특별보고회를 성료했다. 



하늘부모님성회 제60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 기념식

천일국 10년 천력 5월 1일(양 2022. 5. 30.), 천복궁 교회에서 하늘부모님성회 제60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제60회 참만물의 날을 기념하는 1부 경배식은 참가정의 성초점화로 시작해 참가정 대표자 경배를 시작으로 천일국 지도자, 축복가정 순으로 경배가 이어졌다. 문연아 UPF 의장은 보고 기도를 통해 신통일한국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으며,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은 전체를 대표해 말씀을 훈독했고, 효정묵상으로 경배식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대표자들은 전체의 정성을 담아 참부모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했으며, 창립 68주년을 맞아 전임회장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여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성흔 60주년을 맞은 72가정 선배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케이크 커팅을 통해 오늘의 기념식을 축하했다. 이후 올해 정년을 맞이한 목회자들의 효정정년퇴임식에 앞서 효정증거 영상을 다 같이 시청한 후, 정년목회자 14가정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신한국 특별대륙 공동대륙회장은 선배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효정시상에서는 장기근속상 시상과 효정가정상 시상이 있었다. YSP 청년지도자들과 리틀엔젤스 예술단은 축하공연으로 이날을 힘차고 아름답게 꾸며줬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말씀 및 60개월 신통일세계를 향한 특별보고를 통해 희망찬 비전을 나눴다.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식구 여러분, 하늘부모님께서 참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60개월을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어머니께서 사생결단의 죽음을 각오한 정신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섭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가 아닌 대한통일을 외쳐 이 신통일한국과 신통일한국을 기착점으로 한 신통일세계를 저희들은 어머니 재세 시에 어머니와 하나된 참아버님께서도 하늘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그 한날을 이 60개월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68주년, 이 60개월을 재출발하는 이 한날, 부족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결의가 모이고 한마음이 된다면 하늘이 역사하시고 하늘이 저희에게 축복주시고 하늘이 이 60개월 저희들과 함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굳건한 우리의 이 결의를 담아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과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는 참어머니 독생녀 실체성신 참어머니께 큰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한국 특별대륙 공동대륙회장들의 역만세 사창으로 기념식의 모든 일정이 성료됐다. 





- 1 제1부 제60회 참만물의 날 기념식, 성초 점화를 하고 있는 문연아 UPF 한국회장.
- 2 (좌로부터) 보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문연아 UPF 한국회장, 말씀 훈독을 하고 있는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제2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은 엄윤형 신통일한국처장, 특별보고를 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 3 전임 한국회장들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 4 역만세 선창을 하기 위해 신한국의 다섯 명의 공동대륙회장이 단에 올랐다.
- 5 참석자들이 다 같이 역만세를 하고 있다.
- 6 협회 창립 68주년 기념 33년 장기근속, 15년 장기근속, 효정가정상 수상자 기념사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8주년 기념식 정년퇴임목회자 효정증거



김종출 1지구 동대문 교회장(6000가정)

먼저 부족한 저를 참부모님을 대신한 대신자요, 대사자요, 대역자로서 성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퇴를 하지만 남은 여생을 마지막 완성 섭리를 경륜하시는 독생녀 성령의 실체 참어머님을 모시고 승리하는데 일생을 다 바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43가정 실세화를 반드시 해서 천보가정교회도 모든 식구들 앞에 분이 되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원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국희 2지구 덕양 교회장(6000가정)

1975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6년 동안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늘상 느끼면서 보냈는데 제가 지도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 무력해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늘상 염려로 안절부절하시면서 뒤에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배목회자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2선에 서서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천일국 창건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부모님 만수무강하시고 완성된 천일국을 살아계셔서 뜬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상하 5지구 선산 교회장(1800가정)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기까지 배후에서 늘 인도해주시며 격려해주신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잘 지도 편달해 주신 박영배 5지구 회장님과 유준수 대교구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연속 목회가 만28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섭리의 방향과 정책에 따르면서 교회 실세화에 힘썼습니다만 자랑보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8년의 목회를 통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그리고 개인과 가정완성을 향해 전진하여 오늘의 이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독생녀 참여머님을 모시고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효정의 심정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승 5지구 진주 교회장(6000가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승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있게 해주신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의 좌우명은 늘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 그리고 식구들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저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전임자에 충실하고 후임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자세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이제 은퇴한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아갈 것이라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ㄸ

효정가정상_축복가정 부문

신한국 대륙



1지구 문병운-정계자 가정



2지구 정익철-양두애 가정



3지구 김명철-아라이 미요코 가정

신한국 대륙



4지구 김우가-김기순 가정



5지구 한남수-이숙자 가정



신한국 특별지구 이종호-이임선 가정

신일본 대륙



1지구 하시모토 료자-하시모토 히로코 가정



2지구 스즈키 시게히로-스즈키 히로코 가정



3지구 무레이 히토사-무레이 노리코 가정

신일본 대륙



4지구 코즈 아키히로-코즈 스즈코 가정



5지구 카라미 키이치로-카라미 게이코 가정



신대만 특별지구 린쯔룽-쉬수쥔 가정

신미국(북미) 대륙



USA Paul Fontaine & Kum Hee Kwak Fontaine 가정



USA Yuji Yokoyama & Michiko Yokoyama 가정



USA Takashi Takanaka & Françoise Takanaka 가정

신미국(북미) 대륙



USA Staffan Berg & Jane Berg 가정



USA Markus & Wanda Von Euw 가정



Canada John & Keiko King 가정

신아프리카 대륙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Kitete Mbilizi
Chrispin & Zawadi Bake Esther 가정

신유럽 대륙



Russia Alexei Pavlov & Ilsiya Pavlov 가정

신중미 대륙



Dominican Republic Mr. Bernardo Cruz Peralta &
Laurita Roxana Carbajal Ramos 가정

신남미 대륙



Brazil Roberto Pascoalato de Azevedo & Andrea
Mara Alves da Costa de Azevedo 가정

신아시아태평양1대륙



Thailand Porapas Rattanachakorn & Kotchakorn
Rattanachakorn 가정

신아시아태평양2대륙



Philippines Mr. Sudesh Balasubramaniam & Ritsuko
Masubuchi 가정

효정가정상_목회자 부문

신한국 대륙



1지구 조득제-정혁순 가정



2지구 안갑동-이또 모또꼬 가정



3지구 박상현-에노키 아케미 가정

신한국 대륙



4지구 김성기-육숙자 가정



5지구 최수경-이규명 가정

신일본 대륙



1지구 나이토 료왕-젠이 가정



2지구 야스다 기미야스-야스다 마츠에 가정



3지구 심길래-다나카 미치코 가정

신일본 대륙



4지구 다카하시 이사오-다카하시 진 가정



5지구 시모카와 요시후미-최인순 가정



신대만 특별지구 왕스빈-두란방 가정

신미국(북미) 대륙



USA Edner Pierre & Dr. Juanita Pierre 가정



USA Dr. Achille Acolatse & Katsumi Acolatse 가정



USA Hyungtae & Jisun Ha 가정

신미국(북미) 대륙



USA Anton Freidman & Miri Freidman 가정



USA Michael Hentrich & Adonia Hentrich 가정



Canada Katsumi Kambashi & Kyonghui Lee 가정

신아프리카 대륙



Cote d'Ivoire Kouakou Yao Roger & Drame Jokebed 가정

신유럽 대륙



Ukraine Anatoliy Kalmatskaya & Anna Kalmatskaya 가정

신중미 대륙



Costa Rica Fernando Barrantes Elizondo 가정

신남미 대륙



Paraguay Evaristo Fernandez Sandoval & Luiza Oliveira Da Silva 가정

신아시아태평양1대륙



Nepal Prakash Babu Thapa & Maryjane Thapa 가정

신아시아태평양2대륙



Philippines Rev. Melki & Mariflor Gavarán 가정

아프리카의 영성은 아직 살아있다

바카리 카마라 신아프리카 공동 천의원장

참어머님의 아프리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운 본부장님을 통해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세네갈에서 열린 천일국 지도자 총회에 참어머님께서 아프리카 섭리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세 가지 열쇠'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참어머님께서 기적적으로 아프리카의 영적 선지자(예언자 하데베), 아프리카의 기독교(은단가 대주교), 아프리카의 이슬람(셰이크 만수르)을 대표하는 이 의로운 종교 지도자들을 발견 하셨는지 대단히 놀라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의 섭리에 더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참어머님, 우주의 어머니께 영광을 올립니다!

운 본부장님은 지도자들에게 “아프리카의 영성은 아직 살아있다”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우리 재단이 아프리카를 복원하고 다른 지역의 모델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아프리카 유니언(AU, African Union)과 함께 활기를 되찾고 협력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을 선도해야 합니다.

1900년 초, 많은 영적 집단들이 아프리카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아프리카의 영성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인간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인들은



종교를 일상생활이나 현세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뿌리의 일부이며 우리는 조상을 기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인지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종단의 많은 지도자들이 편견과 불명예를 겪었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실천했기에 투옥되거나 유배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단에 해방의 어머니이신 참어머님을 따를 수 있도록 강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참어머님의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된 종단에게 다가가 세계의 영성을 다시 불붙이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종단들이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유니언에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을 대동하라는 참어머님의 지시를 강하게 믿고 있는 예언자 하데베, 은단가 대주교, 그리고 셰이크 만수르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참어머님의 계속되는 풍성한 축복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총은 신아프리카의 하늘부모님 성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식구들에게 부흥을 주었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독생녀이신 참어머님과 함께 신통일세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아프리카를 향한 참어머님의 특별한 사랑

장 피에르 카디마 문다디 신아프리카 대륙회장

2022년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세네갈 다카르에 모여 참어머님께서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시는 아프리카 특별지도자총회에 참석했다. 참어머님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운영호 세계본부장을 보내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비전 2027을 향해 전진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참어머님의 비전, 희망, 기대감을 공유토록 하셨다. 윤 본부장은 방승만 처장, 송인영 처장 등 세계본부 관계자 일행과 함께 동행했다. 올 초 한국에서 열린 천일국 지도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참어머님의 큰 사랑을 가져온 윤 본부장으로부터 참어머님의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듣기 위해 세네갈로 모였다.

2022년 아프리카 지도자 총회에는 100명 이상의 축복가정을 배출해 낸 신아프리카 국가 지도자 27명을 포함하여 54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특별 지도자 총회에 참석한 주요 아프리카 지도자에는 바카리 카마라 천의원장, 장 피에르 카디마 문다디 대륙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아프리카 사무총장, 4지구장, 천일국 청년특사단, UPF 임원, 세계평화여성연합 임원, 전도교육국, 가정국, 통일무도, 천보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페셜 게스트로 임보니 우즈워-레즈베 하베데 선지자, 요하네스 은단가 대주교, 그리고 참어머님과 협력하고 있는 셰이크 만수르 디우프가 참석했다.

총회는 연회로 시작되었고 요하네스 은단가 대주교, 하데베 선지자, 운영호 세계본부장이 개회사를 했다. 5월 18일 모든 지구와 국가는 2020, 2021년 보고를 하고 비전 2027을 향한 60개월 전략적 계획을 제시했다. 5월 19일 윤 본부장은 아프리카 천일국 안착을 위한 21개월의 성공적 전략과 60개월의 전략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다.

개회식에서 윤 본부장은 아프리카에 온 목적이 현 아프리카 유니언 의장인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만나 2018년 아프리카 정상회의 당시 합의한 결의안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모든 아프리카 지도자, 식구들과 참어머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윤 본부장은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자 희망의 표시로 목걸이를 수여해 주신 참어머님께 감사를 표했다.

총회 둘째 날에는 모든 지구 및 국가 보고서 공유했다. 하위 지구장들과 국가 지도자들은 지난 21개월의 활동 보고서와 비전 2027을 달성하기 위한 60개월의 전략을 발표했다. 섭리 기관(UPF, IAYSP, WFWP)은 지구 레벨에 대한 추가적 보고서와 전략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총회 셋째 날, 윤 본부장은 아프리카의 천일국 안착을 위해 지난 21개월간의 성공사례와 60개월간의 전략을 특별 강연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어머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분명했다. 또한 2027년까지 참부모님을 위한 대륙별 승리를 달성하려는 아프리카의 행보도 분명해졌다. 윤 본부장은 참어머님께서 아프리카를 선택하신 것은 영적인 특성과 문화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영성이 아프리카에 널리 스며있기 때문에 참어머님께서 아프리카가 모델 대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전했다. 이처럼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비전 2027 달성으로 참어머님의 섭리적 책임을 함께 짊어질 필요성을 인식했다. 효자로서 지도자들은 참부모님의 어깨가 되어 참부모님의 책임을 짊어지고 효정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윤 본부장의 강연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연합을 통해 대륙 수준의 복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매일 참부모님께서 참석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행복하고 환영하며, 혁신적인 교회와 사역을 창조할 것이다. 셋째, 모든 종파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식구들을 인도하여 천보가정으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다.

강연 말미에 윤 본부장은 비전 2027 실현을 위한 60개월 전략 계획을 제안했다. 시작 1단계(기초)는 아프리카가 모든 활동과 적절한 전략적 경영 결정 과정을 장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도구는 비전 2027을 실현하고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2단계(성장)는 아프리카가 대륙별 축복식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마련하고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3단계(완성)는 대륙 인구의 1/3이 포함된 대륙별 축복식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으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2027년까지 승리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볼 수 있었다.

지도자 총회 후, 윤 본부장은 남아프리카에서 평화를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조직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현 아프리카 유니언 의장인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국가들의 지도자인 니제르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은 청년 교육과 아프리카에서의 교육 이행, 니제르를 세계의 모델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도자 총회 후, 윤 본부장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나흘간의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지도자들은 윤 본부장의 강연과 2027년까지의 향후 60개월 전략적 계획 수립을 반영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기쁨을 위한 모델 대륙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4일 간의 회의라 끝나자마자 참여머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지도자들은 고레섬으로 이동했고 참여머님께서 해원하신 노예의 집에서 기도를 드렸다. 비전 2027을 향해 우리는 2022년 아프리카 지도자 총회를 주관해 주신 참여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본부장님을 통해 총회 기간 내내 참여머님의 사랑을 느꼈다. 참여머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셨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여머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태국 가족들이 알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프로젝트 태국 초종교 평화축복축제

유마 시리말라이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태국 지부 사무총장

태국 가정연합 서부 지역은 태국 칸차나부리 주 스리사와 트 지역의 녹노이 플롯하우스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신종족메시아 축복식을 2022년 5월 1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치단체와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탁월한 협조로 32가정 48명의 신규 축복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축복축제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전체 일정을 함께 하며 참된 행복을 느끼며 참부모님과 가정연합에 감사했다.

초종교 평화축복축제 외에, 이틀간 열린 행사에서는 ‘가족은 사랑과 평화의 학교’라는 주제에 대한 원리 세미나도 포함되었다. 다양한 지방에서 온 태국축복가정들과 새로운 손님들 주로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 지방정부 관리자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에 모였다.

개회식 후,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즐겼다. 저녁 식사 후, 가정연합 강사 키티삭 주다라트는 “가족은 사랑과 평화의 학교”라는 주제와 새로운 커플들을 위한 성주식의 의미에 대해 연설했다.

둘째 날은 초종교 평화축복축제로 시작되었다. 행사 내내

매우 성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참가자들은 진정한 사랑과 평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축복식에 끝에는 여성 커뮤니티의 대표는 모든 참가자들 앞에서 그녀의 부부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에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실은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미 헤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사에 거의 오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부부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기로 했고 축복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아내는 자신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집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결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을 인지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했고, 이제부터 공동체를 위한 봉사 활동과 가족을 위한 보살핌의 균형을 맞추기로 결심했다. 그 커플은 가정연합과 참부모님의 축복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과 큰 기쁨으로 서로를 안아주었다.

이 행사는 서부권 8도 회원들과 축복받은 가족들이 노래, 강연, 오락, 요리 등 스태프 업무뿐만 아니라 경비 분담으로 행사에 기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 모두는 더 큰 선을 위해 함께 일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타인을 위한 감사와 사람의 문화 정착

태국 YSP 청소년 캠프

유마 시리말라이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태국 지부 사무총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태국 지부와 협력한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태국 지부는 태국 부리람주에서 2022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카눅신피타야콤학교에서 청소년과 학생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리더십 육성캠프를 마련했습니다.

2일간의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청소년 캠프는 부리람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사인 아레야 레투야와 부리람 부인과 카눅신 피타야콤 학교의 수팻 생클라 교장에 의해 시작되었고 협력했습니다. 이 캠프는 또한 부리람의 매잉 클럽의 회장인 난타폰 송위차 여사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소년캠프는 학교 내 청소년을 발전시켜 통합과 도덕적 리더십을 창출하고,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번영하는 지역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적 기반인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청소년캠프를 통해 지방에 청년모델재단 및 많은 청년단체 대표들과 함께 일하고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하고 자율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효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게다가, 프로젝트의 활동은 젊은 세대들이 더 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배려로 협력과 지원을 이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후속 교육으로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태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원활한 소통을 유지할 것입니다. 



파라과이 세계평화학술인연합 출범식

세계평화학술인연합 파라과이 지부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신남미 2지구 파라과이 천주평화연합 주최로 파라과이 국회의사당에서 세계평화학술인연합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총리, 연구원, 교수, 군인 및 경찰, 평화대사 그리고 여러 귀빈을 포함한 150명 이상의 저명인사들이 모였고, UN 행사인 국제 가정의 날을 기념했다. 본 출범식은 공영방송을 통해 TV 생중계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

행사는 거장 오스카 바레토가 이끄는 국립경찰교향악단의 음악으로 시작되었다. 악단은 국제 가정의 날을 기념해 국가, 가정, 어머니들의 헌신에 찬사를 보내는 음악을 연주했다.

로지타 듀에크 데 줄리아노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은 새로운 평화대사 임명을 축하하는 환영사를 전했고 그녀는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인 문훈숙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여성의 자질 중에서도 연민과 동정심, 특히 세상을 향구적인 평화와 화합으로 이끄는 어머니의 마음인 희생적 사랑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성서교회의 창설자이자 파라과이 세계평화종교인연합 대표자인 파블로 에스티가리비아 목사가

기도했다.

피스티비에서 제작한 싱크탱크 2022 영상을 공유하며 신통 일한국에 대한 참부모님의 비전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세계평화학술인연합 등 천주평화연합의 다양한 연합 창설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천주평화연합 파라과이 구스타보 줄리아노 교육국장의 상호의존, 상호 번영,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말미에 천주평화연합 파라과이 에바리스토 페르난데스 목사는 평화대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조언하며 이들이 가정을 지키는 하늘의 특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의 모델, 좋은 관행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여러 대학의 행정관, 연구원, 교수, 넴비(Nemby)시의 시장, 군인, 경찰, 의사, 사회 각 분야의 예술가 등 32명의 새로운 평화대사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이 새로운 평화대사들은 천주평화연합의 철학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세계평화학술인연합 창립 결의안에 서명했다. 



임명된 평화대사들의 소감문

카렌 막달레나 드 고토

과이라 사립대학교 학과장

저는 이 자격이 중요한 약속과 관련된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와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가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라몬 바르가스

대학 교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정점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1844년 우리 국가가 파라과이의 국가적인 방패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헥터 리올로 알바레가

파라과이 유명 음악가

파라과이의 모든 음악가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곳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은 가정입니다. 저는 이 자격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일하는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토마스 올메도

넴비(Nemby) 시장

오늘 우리가 받은 상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은 국회의 성스러운 장소에서 항구적 평화세계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연합이 생겨 기쁘고 우리는 천주평화연합과 함께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임명된 평화대사를 위한 지도자들의 축사

델 필라르 메디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파라과이 창립 멤버이자 부국장

저는 한국과 이곳에서의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에바리스토 페르난데스 목사님과 함께 일대일 방법을 활용한 원리강론에 대한 연구가 참부모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강하고 헌신적입니다. 많은 평화대사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안 알베르토 데니스 핀토스

현 그레이터 아순시온 대학교 총장, 전 국회의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파라과이 창립 멤버

새로 임명되신 평화대사님들 축하드립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정신적 평화를 통해 행복을 찾으십시오. 상호 존중과 정직함에 기초하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파라과이를 건설하십시오. 평화대사 자격을 수여해주신 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역할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직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고받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한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의 학술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대학의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평화대사들의 논평

마우로 오소리오

넴비(Nemby)시 사무국장

먼저 세계평화를 지지하는 견고한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매우 자선적인 목표와 함께 한 매우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자선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저에게 대단히 흡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보다 인간적이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고한 도덕적, 윤리적, 영적 구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존중과 관용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없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유산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길 바라왔습니다. 저는 실제적 행동으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한다는 보편적 비전을 통해 이러한 도덕적 권위를 추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후아레스 줄리오 쿠에바스 콘브레스

교육과학 · 병원행정학 · 경영학 석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활동을 하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류와 평화, 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 평화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기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국가 그리고 세계평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목표와 함께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학문적 배경과 건강 분야에 대한 신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완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류를 위해 하고 있는 아름다운 활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

폴리나 가르시아 라토레

경찰부국장

먼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천주평화연합에 감사드리며 특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일을 통해 실천하고, 실행하고, 성취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화대사로서 제 경험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 더 나은 비전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인류에 대한 세계적 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결성 덕분에 저는 훌륭한 인재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분야와 국가 지도자들을 결속시킴으로써 이 조직이 이론 위대한 진보에 주목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적절한 자존감과 정신적 평화를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종교, 정치, 인종 등 차별의 장벽을 깨고 관련된 공동체의 조화를 반영하면서 참석자들 사이의 평온함, 안전함, 형제애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해 싸웁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될 때 승리는 더 쉬워질 것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세계평화는 결국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세계평화학술인연합의 회원이자 기획자인
에스메리타 산체스 부위원의 지원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행사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fb.watch/diddFgssrl/>



<https://youtu.be/TzalliiE6BI>



발왕산 HJ모나파크 천년주목숲길 조성 경과보고

신달순 HJ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 사장



이 글은 천일국 10년 천력 5월 15일 (양 2022.6.13) 진행된 발왕산 HJ모나파크 천년주목숲길 봉헌식에서 신달순 HJ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 사장의 보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왕산 HJ모나파크 신달순입니다. 그동안 복귀섭리의 일선에서 독생녀 참어머님이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축복이 발왕산에 여러 차례와 축도와 축복을 받았습시다만 오늘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천년주목숲길이 하늘부모님께 봉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천지인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천일국 지도자 여러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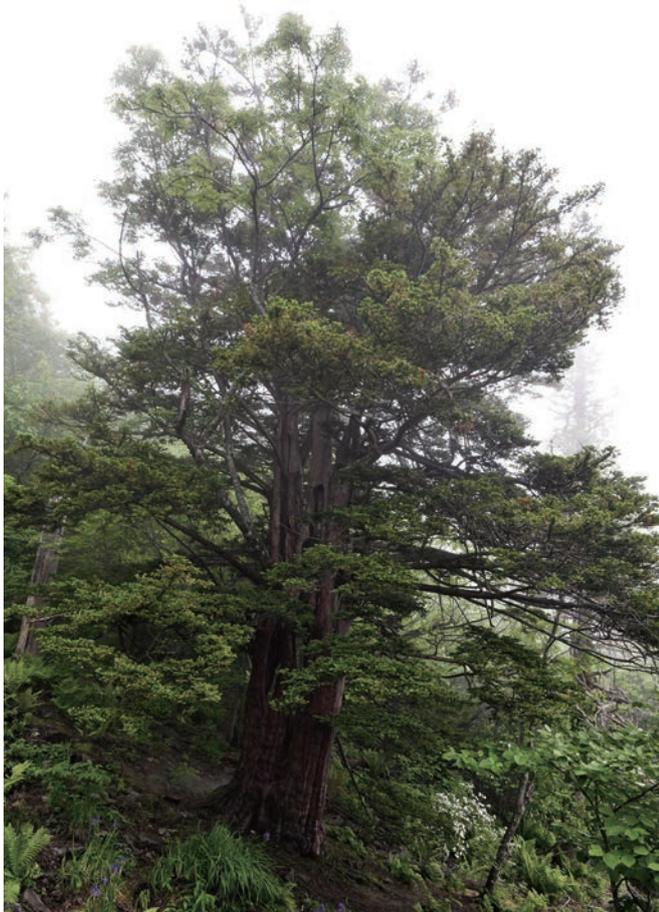
대자연을 뜻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원, 모나파크

‘모나’라는 말은 마더 네이처(Mother Nature)에서, 마더에서 ‘MO’ 네이처에서 ‘NA’를 따서 어머님께서 명명해주신 모나(MONA)입니다. 한자로는 어머니 모(母)자에 아름다운 나(娜)자를 표기하여 아름다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모나’라는 말이 아라비아어로는 ‘바람, 소망, 기원’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대로 모나파크가 모두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이뤄가는 명실 공히 멋진 이름값을 하는 그 성공의 날을 향해서 오늘 첫 발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모나파크와 함께 어머님께서 제일 먼저 명명해주신 마유목, 효정수, 평화봉 이런 이름과 함께 오늘 발왕산은 참어머님을 모시고, 커다란 축복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무, 어머니왕주목

2020년 7월 17일 발왕수가든을 봉헌하실 때 참어머님께서 축도를 눈물로 해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창조이상 그 하늘부모님의 꿈이 서려있는 동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축도의 기도를 해주시고 올라가시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계속 훔치시면서 “아버님이 여기 와 계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저도 계속 울면서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내려오면서 이 길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길 만드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당국에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3년 반 걸려서 오늘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감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자갈밭에 어머니왕주목이 서 있었습니다. 몇 살 된 나무로 보입니까? 이 나무의 둘레가 4.5m이고 둘레로 봤는데 1800년에서 2000년 됐다고 하는데, 저는 1943년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온갖 가시밭길을 겪어오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독생녀를 만나셨으면 뜻이 이루어졌고 참된 부모가 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 다시 오마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2천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바로 이 돌자갈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라색 붓꽃을 심기 위해서 등짐을 져가지고 여기에다 흙을 쌓기 전에는 완전히 여기 돌바위산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주목이 1943년 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800년에서 2000년 된 그 기다림 속에서 나타난 어머니왕주목입니다. 이 주목 가운데 있는 마가목이 100여년쯤 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심완석 본부장은 “80년쯤 됐습니다. 저 마가목이 1943년생일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임직원들의 마음에서 섭리적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은 그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발견한 순간 어머니왕주목이라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고, 여기에서 200미터쯤 가면 똑같은 굵기의 아버지를 닮은 든든한 아버지같은 아버지왕주목이 있습니다. 하늘부모님의 뜻, 참부모님의 뜻은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왕주목, 아버지왕주목으로 탄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년 넘은 주목이 가득 차 있는 숲길, 천년주목숲길

3.2km의 데크길로 조성된 천년주목숲길, 비록 내려오는 길은 1.5미터의 좁은 길이지만, 천년 넘은 주목이 모나파크 공원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데크길까지도 아래에서

식물이 자라날 겁니다. 자연훼손 하나도 없는 100% 창조주의 꿈이 깃들어서 있는 그런 공원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한 토막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여기를 와야 되고, 누구나가 다 천일국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단 없이 데크길로 완성을 했습니다. 때론 어떤 임원이 그래도 여기는 계단 처리하는 것이 원가가 더 적다고 말했지만, “무슨 소리아. 계단을 놓으면 이 길이다 생명을 잃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부터 유모차나 휠체어나 누구든지 이제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와서 길을 걸으면서 나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천년주목이 다 개성진리체입니다. 천년주목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공생공영공의를 얘기하는 나무, 도전정신을 얘기하는 왕발주목, 겸손의 나무도 두 군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겸손이 성공을 만들고, 겸손이 왕의 자리를 길게 가게 합니다. 어머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이 곳에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교육의 장이 되고, 청소년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 임직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모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7월부터 150여개 초·중학교 수학여행이 5만여 명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 다섯 가지씩 써라.’ 이런 시간도 가질 것이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들이 왔다 가면 또다시 우리의 고객이 되고, 이성친구가 생겨도 올 것이고, 가족이 생겨도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높이는 모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모나파크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천주평화사관생도, 어두운 세상에 빛 된 자가 되라

천주평화사관학교 제1기 입학식
천일국 원년 천력 1월 23일 (양 2013.3.4) |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채플실

여러분 43명의 유피 아카데미 (Universal Peace Academy) 사관생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서 5년간에 진리와 모든 면에서 실체적으로 신앙과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의 생애는 물론이고 70억 인류에게 등불이 되는 사명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150년 전에 인도의 시성 타골은 한국을 향해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코리아는 인류의 등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방의 빛으로 나타나 세계의 빛이 되겠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이 한국을, 특히 천지인 참부모님께서서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말로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지도자나 책임자들이 실천 공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2020년에 기필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조국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말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들이 실천해 줘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진리와 말씀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입학하게 되는 사관생도들은 정말 역사에 첫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이 얼마나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한날입니까? 그걸 실감하고 공부하고 생활하



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하늘에 여러분들이 인류 앞에 빛 진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젊음과 패기는 천일국 창건에 있어서 거름이 될 것입니다. 천일국 창건에 있어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섭리의 완성, 새 시대 새 역사의 천일국의 창건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로 맺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까 여러분이 선서하고 맹세한 대로 열심히 움직이세요. 그러면 누가 같이할까요? 천지인 참부모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빛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잘 성장해 주실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늘부모님께 감사드리 는 마음으로 그만 말해도 되겠죠? 

미래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천주평화사관학교

1. 천주평화사관학교 소개

천주평화사관학교(Universal Peace Academy)는 참부모님과 하나되어 천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써 지난 2013년 3월에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1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참아버님 성화 이후 첫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주축이 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천주평화사관학교의 석사과정(시니어 UPA로서 이하 선학UPA)을 설립하셨다. 지난 2020년에는 선문대를 천일국 국립대학으로 명하시며 신학과를 천주평화사관학교 학부 과정(주니어UPA로서 이하 선문UPA)으로 새롭게 출발시켜주셨다. 이로써 학부에 이어 석사, 인턴과정까지 총 7년간의 천일국 지도자 양성 코스가 확립되었다.

천주평화사관학교에서는 효정을 기반으로 목회, 선교, 학문, 교양의 역량을 두루 갖춘 ‘참부모를 닮은 천일국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 생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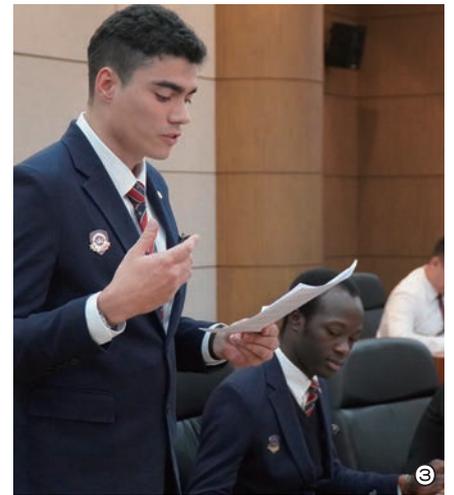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훈독회, 체력 및 제식 훈련, 출정식, 점호, 기도회, 정성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 내적 자세를 확립하고, 그 외 다양한 교육 훈련을 통해 각각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2. 선문 UPA 출발과 현황

참어머님께서서는 천주평화사관학교 학부과정을 출발하시기 전, 2019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성화학생을 직접 불러 모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사관학교에 가도록 말씀을 주셨다. 더불어 효정랑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시며 그들의 장도를 축복해 주셨다.

그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입학한 UPA 사관생도들은 현재 3기까지 선발되어 약 200여명이 천일국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임하고 있다. 생도들의 교육훈련은 기본적으로 정규 교과 수업과 체육적 훈련과정이 연계되어 경험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1~2학년은 참부모 이해를 목표





로 기초적인 신학과 말씀의 이해와 함께 1년간 청소년 목회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3~4학년은 신통일 운동과 섭리 이해를 목표로 해외어학 및 선교실습, YSP 활동 등의 현장 인턴 경험을 함께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시되는 학부 4년의 교육훈련 과정 아래 1학년은 교과수업과 더불어 생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훈련과 언어학습, 통일무도, 효정문화예술교양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2학년은 평일에는 교과수업 중심으로, 주말에는 실습으로 신한국 전국 30여개 교회로 파송되어 청소년 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3학년인 1기 생도들은 필리핀 어학연수 과정에 있으며, 어학연수를 마친 후에는 전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서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쌓게 된다.

각 학년별로 교육과정은 다르지만 전체 훈련 기간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전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인류의 1/3이라도 하늘부모님께서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참여머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계개척

- 1 선학선문UPA 합동 프로그램, 작약꽃밭에서.
- 2 부산 성지순례 중엔 천주평화사관생도들.
- 3 수업 중인 생도들 모습.
- 4 선학UPA 출정식.
- 5 효정문화예술교양교육으로 기타를 배우고 있는 생도들.
- 6 통일무도를 연마하고 있는 선학 10기 생도들.
- 7 선문 2학년 목회실습 장면.

전도기간에는 각 임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시도해왔고, 학기 중에는 선문대 YSP와 연계하여 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는 참여머님께서 ‘당당하게 기독교인에게 다가가 교육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독교인 전도도 시도해볼 계획이다. 전도활동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함과 동시에 미래에 천보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경험도 함께 쌓아가고 있다.



3. 선학UPA 현황과 향후 계획

2013년에 시작한 선학UPA는 올해 10년차를 맞아 청년특사 발령을 받은 1기~7기와 현재 훈련과정에 있는 8기~10기까지 약 160명이 있다. 기존 선학UPA는 석사과정 2년, 인턴십 1년의 형태를 유지해왔으나 올해 9기는 청년층 전도를 위한 목회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된 청년교회 교회장으로 2년 차에 발령을 받아 청년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석사과정을 병행하면서 현장에서는 새식구 및 휴면식구 복귀와 성화청년에배인 효정:희망누리 정착을 위해 투입하면서 더욱 현장성을 갖춘 지도자로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다.

석사과정과 인턴십까지 3년의 훈련과정을 마친 생도들은 참여머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안수식을 통해 발령을 받고 '천일국 청년특사'로 전 세계에 나가 활동하게 된다. 2024년에 선문 UPA 1기 생도들이 진학하게 되면 선학 UPA는 인턴십 형태로 바뀔 예정으로, 이때부터는 4년간의 선문UPA 교

육과정과 선학UPA에서의 인턴십 3년의 총 7년 과정을 마친 사관생도들이 청년특사로 안수를 받게 된다.

UPA 교육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은 참여머님의 심정을 헤아려드릴 수 있는 효정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효정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UPA 생도들은 참여머님 말씀을 토대로 다함께 정성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생도들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공연을 올려드리거나 행사 오프닝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기수단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참여머님께서 생도들이 주요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생도들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참부모님의 심정을 더 가깝게 느끼고 효정의 마음을 키우고 있다.

천주평화사관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참여머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사랑, 직접적인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도들은 참여머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사랑, 그리고 세계본부의 교육과 지원에 늘 감사함을 깊이 느끼며 최선을 다해 임하여 성장해 가고 있다.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지도자 특별보고회

천일국 10년 천력 4월 26일 (2022.5.26)

천정궁



축
송
리
천일국 10년 천력 4월 26일
(2022.5.26)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022 상반기 한국 YSP 전국 지도자 워크숍

일시 2022년 5월 30일-31일
장소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